

중년기 부부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Effects of Middle-aged Marital Conflicts on Dyadic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 and Sex-role Attitude-

서미아
단국대학교

Mia Seo(miaseo@dankook.ac.kr)

요약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긍정감정 및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70명의 중년기 기혼 남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12년 4월 12일에서 6월 2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부부 적응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긍정감정은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나 성역할태도는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chi^2=38.90$ 표준 $\chi^2= 1.77$ (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 부부 적응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88.9%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긍정감정을 변화시킴으로서 중년기의 부부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부부관계증진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 중심어 : | 부부갈등 | 긍정감정 | 성역할태도 | 부부적응 | 중년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on dyadic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 and sex-role attitude. The participants were total 270 middle-aged married people and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2 to June 24 in 2014. The data was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SPSS 17.0 and AMOS 18.0 program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positive emotion on dyadic adjustment. Second, positive emo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ut sex-role attitude did not. Third, The modified model showed a good fitness indices($\chi^2=38.90$ standardized $\chi^2=1.77$ (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 and explanation power was 88.9%.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ddle-aged dyadic adjustment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positive emotion. This study results will be contribute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for enhanc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and education program for middle-aged.

■ keyword : | Marital Conflict | Positive Emotion | Sex-role Attitude | Dyadic Adjustment | Middle-aged |

* 본 연구는 2012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12월 30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18일

교신저자 : 서미아, e-mail : miaseo@dankook.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라는 시기적 특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독립과 함께 부부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나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노화가 뚜렷하며,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1]. 자녀 양육과 부부 및 가족관계가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중년기부부에게 있어서, 부부 적응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에서 부부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 갈등이 나타나는 횟수, 갈등의 강도, 내용, 해결방법 등이 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년기의 높은 부부 갈등은 부부 적응을 저하시키고[2]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 온다[3]. 이에 중년기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시기로서 높은 이혼율을 보여 남성의 경우 전체 이혼율의 77.5%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 70.3%를 차지한다[4].

그간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중년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중년기 적응을 위기감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관련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5]. 따라서 중년기라는 발달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기의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년기의 부부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 긍정감정 및 성역할태도는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요인이며[6] 높은 부부갈등은 부부적응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긍정감정과 같이 긍정정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왔다. 즉, 중년기 여성의 경우 부부갈등이 우울[7], 부부간의 적대감[8], 분노 및 공격성[9]등의 부정정

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부부관계에서도 긍정감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부부 적응에 대해 긍정감정이 직접적인 정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되기도 하고[10], 긍정감정이 심리적 회복력과 정서적 안녕감을 강화시켜 부부 적응을 증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1].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에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가 단절되어 부부는 원래 자신이 가진 사고와 역할에 더욱 고정적인 모습으로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부부갈등은 남편에게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강화시키고 이는 곧 아내의 부부 적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12]. 부부갈등관계에서 남편의 정서적 억압과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부부 적응을 낮추며[13]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가족 응집력과 함께 부부 적응을 46.8%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성역할태도 또한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 태도와 진보적 태도로 구분된다[15].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16]. 젊은 층과 여성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남성들은 고정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 적응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이나, 성역할태도, 부부 적응은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다를 수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으로 전환하여 남성과 여성간의 엄격한 역할구분이 없어지는 시기이다. 즉, 남성은 내재해있던 여성성이 출현하여 좀 더 부드럽워지고 관계 지향적이 되는 반면 여성은 내재해있던 남성성이 발현되어 지배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다[18]. 부부가 평등한 의사소통 패턴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양성적인 성역할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은 부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보다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중년기 부부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긍정감정 및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의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변인들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변화시켜야 하는지 탐색하고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중년기의 부부 적응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중년기의 부부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파악한다.
- 둘째, 긍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셋째, 최종적으로 부부 적응 모형을 구축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부부 적응

부부 적응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Spanier는 부부 적응을 부부만족도, 부부 일치도, 부부 결합도, 애정표현으로 부부행복의 개념들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하였다[20]. 부부 적응은 기능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부부 상호간의 차이점, 배우자의 긴장감, 부부간의 결합,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를 서로 합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2. 중년기 부부적응 영향요인

2.1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좋은 부부관계란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관계이다. 부부갈등이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우선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영향, 성장한 가정환경의 차이, 경제적, 종교적 요인, 성격차이 등이 있다[21]. 실제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갈등의 중심은 보통 내면에 있다.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로 표면화 된 것뿐이다[22].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부부관계는 긴장감이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적대감까지 형성되면 부부 결속력은 급속히 와해되고, 결국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중년기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부 적응의 어려움은 중년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년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노년기 이혼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23].

2.2 부부갈등과 긍정감정 및 부부적응

부부간의 원만한 긍정감정의 교류는 부부의 창의성과 융통성을 높여서 부부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24]. 긍정감정에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인간의 중서 중 초기에는 주로 부정정서에 초점이 모아졌다. 즉,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인 부정정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 부정정서를 감소 시킴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정정서를 완충시키는 긍정감정의 효과가 보고되면서 긍정감정의 기능에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Fredrickson은 긍정감정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다[11]. 나아가 긍정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충족감과 자존감이 향상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의 확장과 신체적 건강의 증진 등으로 이어진다. 긍정감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다가감(approach)과 지속성(continuity)이다[25]. 이러한 다가감과 지속성은 중년기 부부가 서로 정서적인 교류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활력 있는 부부관계를 유지해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

부부에게 있어 긍정감정이란 부부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interest), 흥미(excitement), 애정(affection), 유머(humor), 인정(validation), 지지(support) 등이 포함된다[26]. 부부간의 ‘애정’은 부부가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핵심이다. 부부의 갈등기간 중에도 부부간 애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결혼 안정성 및 결혼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27]. 그러나 높은 부부갈등은 긍정감정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부부 적응을 방해하는 반면 낮은 부부갈등은 긍정감정을 증진시켜 부부 적응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3 부부갈등과 성역할태도 및 부부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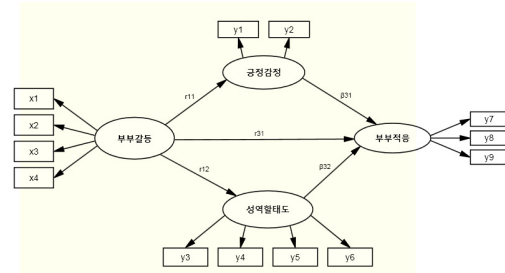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역할(gender role)이란 한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서 여성 또는 남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로서 개인의 태도, 선호하는 경향, 행동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28]. 성역할태도는 Osmond 와 Martin에 의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었다[15]. 하나는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즉,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차이를 두는 ‘전통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융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진보적 개념’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 적응은 낮아지며[17] 부부간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역시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 적응은 낮아졌다[13]. 남녀 간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가 진보적인가를 구분 짓는 주요 내용은 가사의 분담이다. 보통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부부 적응은 높게 보고되나 이는 주로 남성의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부부 적응은 높은 반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부부 적응은 낮게 보고되고 있다.

2.4 연구의 가설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부부갈등을 원인변수로 하여 긍정감정 및 성역할

태도의 매개변수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x1=성과애정, x2=생활습관 및 시댁처가관계, x3=성격, x4=자녀관계, y1=자신에 대한 감정, y2=배우자에 대한 감정, y3=직업역할, y4=가사역할, y5=양육태도, y6=고정관념, y7=부부일치성, y8=부부결합과만족도, y9=애정표현

그림 1. 부부적응에 대한 가설 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긍정감정 및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적합성과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및 일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이 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기혼자로서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지내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 기관은 본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기재 요령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전에 대상자가 자의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적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한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본 연구자들이 배포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287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70부(94.1%)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측정 변수 당 15명을 권장하며 표본크기 200이 구조모형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9]. 구체적으로는 국가통계에서 사용하는 표본이론방식인 $n = \frac{n_0}{1 + \frac{n_0}{N}}$ 을 적용하여 표본크

$$n = \frac{n_0}{1 + \frac{n_0}{N}}$$

기를 산정한 결과 95% 신뢰도에서 오차한계 6%정도에 적절한 표본크기는 267명으로 나타나 (N : 유한 모집단: 2010년 인구 총 조사 자료 40~50대 유배우자 모집단 수: 12,228,811명, n : 최종표본크기) 본 연구는 권장표본크기를 충족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부부갈등, 긍정감정, 성역할태도, 부부적응의 총 4개이며 각 변수는 2-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총 100문항이 사용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2문항을 제거하고 총 98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부갈등 척도

대상자의 부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인동이 작성한 부부갈등 척도를 이용하였다[30]. 본 도구는 성격, 생활 습관 및 태도, 의사소통, 성생활, 애정 및 친밀감, 자녀관계, 시댁 및 처가관계, 경제영역에 대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type으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73%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문항제거 없이 총 36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하위변수별 Cronbach's alpha는 성과예정 .97, 생활습관 및 시댁관계 .94, 성격 .91, 자녀관계 .90으로 나타났다.

긍정감정 척도

대상자의 부부간 긍정 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O'Leary와 Arias가 개발한 긍정 감정 질문지(Positive Feeling Questionnaire)를[31] 김진숙이 한국판 부부감정 질문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2]. 본 도구는 부부관계에서 자신 및 배우자에 대하여 느끼는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의 8개 문항은 최근 두 달 동안 배우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느낀 감정을 측정하고 후반부의 9개 문항은 자신에 대해 느낀 감정을 7점 likert-type으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17점에서 119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긍정 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77%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문항제거 없이 총 17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4였고 본 연구에서의 하위변수별 Cronbach's alpha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 .94, 자신에 대한 감정 .97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 척도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종희가 제작한 GRAS(Gender Role Attitude Scale)를 사용하였다[33]. 본 도구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고정 관념의 세 영역에 대하여 성역할 태도의 전통과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5점 likert-type 척도로 평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더 진보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4%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1문항을 제거하여 총 1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혜원과 김명소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로 나타났고[34]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인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직업역할 .86, 가사역할 .73, 양육역할 .59, 고정관념 .65로 나타났다.

부부적응 척도

대상자의 부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가 개발한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35] 김수진과 도현심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6]. 본 도구는 부부 일치성 13문항, 부부만족도 10문항, 부부 결합력 5문항, 애정표현 4문항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type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32점에서 1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72%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1개 문항을 제거하여 총 31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수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부부일치성 .98, 부부만족도 .81, 부부결합과 만족도 .94, 애정표현 .9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정규성 확인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으로 파악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 상관계수로 검정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가설검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70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141명(52.2%), 남성이 129명(47.8%)이었다. 연령은 40대가 184명(68.1%), 50대가 86명(31.9%)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87명(32.2%), 대졸이 142명(52.6%), 대학원 졸이 28명(10.4%)로 나타났다. 결혼 년 수는 10년 미만인 27명(1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128명(47.4%),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104명(38.5%),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1명(4.1%)이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잠재변인 부부갈등과 긍정감정, 성역할 태도, 그리고 부부적응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치 및 정규성

(N=270)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부부갈등	2.15±0.63	1.05-4.58	0.42	0.17
긍정감정	5.66±0.93	2.04-7.00	-0.90	0.69
성역할태도	3.48±0.69	2.00-5.00	0.02	-0.73
부부적응	3.19±0.37	2.38-3.99	0.63	0.91

부부갈등의 수준은 평균이 2.15점(sd=.63)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긍정감정은 평균이 5.66점(sd=.93)으로 높았으며, 성역할태도는 평균이 3.48점(sd=.69)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이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종속변수인 부부 적응의 전체 평균은 3.19점(sd=.37)로 중간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연구대상자들의 부부 적응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1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자료는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상관계수는 절대 값이 .70이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 값은 .099-.734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003-2.343, 공차는 .347-.951로 나타나 본 자료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변인의 상관행렬

(N=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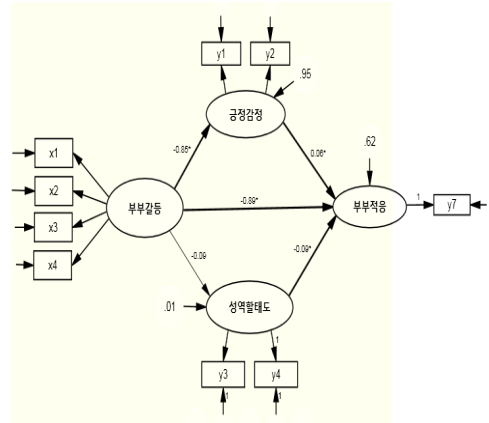
변수	부부갈등	긍정감정	성역할태도
긍정감정	-.734**		
성역할태도	-.124*	.099	
부부적응	.223**	-.279**	-.144*

*p<.05, **p<.01

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및 수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chi^2=112.22$, 표준 $\chi^2=1.87$ (CMIN/df), GFI=.94, AGFI=.91, NFI=.68, SRMR=.07, CFI=.80, RMSEA=.05로 나타나 NFI, SRMR, CFI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0.4 이하로 나타난 y6와 y8, y9를 우선 제거하였고 그 다음 y5를 제거하였을 때 적합도 지수들이 상승하였다. 요인들의 집중타당도는 Hair 등[37]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산추출지수(AVE)를 산출하였다. 부부적응의 경우 단일 측정변수로서 집중타당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그 외 모든 잠재요인들의 개념 신뢰도(CR)가 0.81-0.93, 분산추출지수(AVE)가 0.70-0.78로 집중타당도를 가졌다. 또한 각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square^2 이 .00-.68로 AVE 값보다 작아 판별타당도를 만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8.90$ 표준 $\chi^2=1.77$ (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p<.001

x1=성과애정, x2=생활습관 및 시택처가관계, x3=성격, x4=자녀관계, y1=자신에 대한 감정, y2=배우자에 대한 감정, y3=직업역할, y4=가사역할, y7=부부일치성

그림 2. 부부적응에 대한 구조모형

5.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및 효과

수정모형의 각 경로의 모수 수정치는 [표 3]과 같다. 경로의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양측 검정 시 임계치의 절대 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총 5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한 경로는 부부갈등에서 부부적응($\beta=-.89$, $p<.001$)과 긍정감정($\beta=-.85$, $p<.001$), 긍정감정에서 부부적응($\beta=.06$, $p<.001$), 성역할태도에서 부부적응($\beta=-.09$, $p<.001$)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에서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긍정감정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beta=-.85$, $p<.001$) 부부갈등이 낮을수록($\beta=-.89$, $p<.001$), 긍정감정이 높을수록($\beta=.06$, $p<.001$), 성역할태도가 낮을수록($\beta=-.09$, $p<.001$)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부부 적응에 대한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beta=-.04$, $p<.001$). 부부 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beta=-.93$, $p<.001$)이 가장 높았고 긍정감정($\beta=.06$, $p<.001$), 성역할태도($\beta=.09$, $p<.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부부적응을 88.9%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긍정감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z=-9.811(P<.001)$ 로 나타나 긍정감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및 효과 (N=270)

내생 변수	외생 변수	β	C.R.	SMC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긍정 감정	부부 갈등	-.85	-15.47	.715	-.85		-.85
부부 적응	부부 갈등	-.89	-8.01	.889	-.89	-.04	-.93
	긍정 감정	.06	.58		.06		.06
	성역할 태도	-.09	-1.78		-.09		-.09

V.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의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긍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외생변수는 부부갈등으로 내생변수는 긍정감정, 성역할태도, 부부 적응으로 구성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일부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모형의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지수들이 적합한 수준에서 중년기 부부 적응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결과와 모형이 도출되었다. 즉,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 긍정감정, 성역할태도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부부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88.9%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부부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으면 부부 적응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일반적인 논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적하는 부부갈등은 부부 적응을 감소시키는 결과와 일치하며[2]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 부부

적응은 낮아지고 분노감정은 더 높아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38].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중년기의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전략이며[39], 부부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여가생활도 중년기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볼 때[40] 부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긍정감정은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간의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감정은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적응을 증진시킨다는 보고[41] 및 부부 갈등에 대한 긍정감정은 부부 적응을 예측하는 유일한 변인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26] 중년과 노년의 부부에게도 부부의 긍정감정은 행복하고 안정된 부부관계의 특성이라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42]. 긍정감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감정의 영향력은 일관성 있게 규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긍정감정은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처를 증가시키고[43], 문제해결기술을 증진시키며[44]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킨다고[45] 보고되고 있다. 중년기에 부부적응을 하는데 있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긍정감정은 좀 더 폭 넓은 사고와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설혹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부관련 연구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긍정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결과 긍정감정이 중년기 부부관계적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향후 중년기 부부를 위한 부부 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감정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에서 부부갈등은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을 매개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개인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든다[46]. 부부간의 갈등이 적

고 서로 협력하게 될때 남편과 아내는 직업과 가사,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해나가는 진보적인 상황을 보인다. 그러나 부부간 갈등이 심할 수록 서로 위축된 모습을 가지게 되어 소극적인 태도로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들에 집중하게 되어 결국 전통적인 역할에 치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점은 대학원생과 일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한 데 기인하는 대상자 편중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성역할태도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 수록 부부 적응의 요인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47] 중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9]. 또한 본 결과에서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부부 적응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이고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한다[48]. 한편, 성역할태도의 하위요인 중 양육태도와 고정관념은 부부적응에 대한 설명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가 중년기라서 자녀 양육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나 태도 등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고정관념도 중년기의 경우 양성성의 개념을 가져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기 때문에[19] 중년기의 부부 적응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가장 좋고 설명력이 있는 최종적인 수정모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부부적응의 측정변수 중 부부결합과 만족 및 애정표현이 제거되었다. 부부관계에서 부부각자의 애정과 정서표현은 자신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4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애정표현이 설명변수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정서를 외부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

는 점과[50] 중년기의 부부 적응이 애정표현보다는 서로간의 헌신과 책임에 근거한 결혼 안정성을 더 증시하기 때문으로[51] 생각된다. 또한 부부결합과 만족이 설명변수가 되지 못한 점은 50대와 같은 중년기에 여성은 폐경을, 남성은 은퇴를 경험하여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며 성생활에서의 결합력과 만족보다는 부부의 일치성을 느끼도록 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라[52] 할 수 있다. 즉 중년기 부부의 적응은 서로간의 헌신을 기반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와 결심이 서로 하나 됨을 이루어 부부일치성을 가질 때 더욱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연구 대상자수가 대단위수가 아니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상자와 기업체에 종사하는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중년기 전체에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는 단회의 측정만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한계점을 분명히 가진다. 이에 중년기 부부 적응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칫 부부간의 단절을 경험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의 부부갈등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간접적 경로를 구성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은 외생변수로 부부갈등이, 내생변수로 긍정감정, 성역할태도, 부부 적응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개의 잠재변수와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가설모형은 일부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모형에 수정을 가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에서 지수들이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여 중년기 부부 적응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나타냈다. 가설

모형에서 설정한 5개의 경로 중 총 4개의 경로가 지지되었다. 즉, 부부갈등이 긍정감정과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긍정감정이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역할태도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지지되었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부부갈등은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구조모형에서 긍정감정은 부부갈등과 부부 적응의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났으나 성역할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중년기 부부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부부간 긍정감정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의 부부갈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중년기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의 긍정감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자각과 표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제언한다.

셋째, 중년기의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부갈등과 긍정감정, 성역할태도에 개입하기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J. Conway, *Men in Mid-Life Crisis*, Colorado Springs: Chariot Victor Publishing, 1978.
- [2] 송두리, 문정숙, 김영희,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pp.65-76, 2012.
- [3] T. L. Houston, J. P. Caughlin, R. M. Houts, S. E. Smith, and L. J. George,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0, pp.237-252, 2001.
- [4]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5] 이은아, “중년기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부갈등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07-126, 2006.
- [6] E. Graber, C. Laurenceau, J. Miga, E. Chango, and J. Coan, “Conflict and Love: Predicting Newlywed Marital Outcomes from Two Interaction Contexts,” *J. of Family Psychology*, Vol.25, No.4, pp.541-550, 2011.
- [7] M. A. Whisman, “Marital Adjustment and Outcome Following Treatments for Depress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9, pp.125-129, 2001.
- [8] C. L. Notarius and H. J. Markman, “Coding Marital Interaction: A Sampling and Discussion of Current Issues,” *Behavioral Assessment*, Vol.11, pp.1-1, 1989.
- [9] 양영숙, 김봉환,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2호, pp.683-699, 2009.
- [10] J. N. Melby, X. Ge, R. D. Cogner, and T. D. Warner, “The Importance of Task in Evaluating Positive Marital Interac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pp.981-994, 1995.
- [11] B. L. Fredrickson,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Vol.3, No.7, pp.1-25, 2000.
- [12] M. J. Breiding, “Observed Hostility and Dominance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Gender Role Conflict and Wives Outcomes,”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1, pp.429-436, 2004.
- [13] C. R. Windle and D. A. Smith, “Withdrawal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Husband Gender Role Conflict and Wife Marital Adjustmen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Vol.10, No.4, pp.245-260, 2009.
- [14] J. L. Campbell and B. M. Snow, “Gender Role Conflic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 of Men's Marital Satisfaction," J. of Family Psychology, Vol.6, No.1, pp.84-87, 1992.
- [15] M. W. Osmond and P. Y. Martin,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 of Marriage and Family, Vol.37, No4, pp.744-758, 1975.
- [16] 백주희,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3호, pp.239-251, 2009.
- [17] 이정은, 이윤형, "성역할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543-2555, 2012.
- [18] K. L. Cooper and D. L. Gutmann, "Gender Identity and Ego Mastery Style in Middle-aged, Pre-and Post-empty Nest Woman, Gerontologist, Vol.27, pp.347-352, 1987.
- [19] 전혜성, 서미아,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49-357, 2012.
- [20] G. B. Spanier,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No.1, pp.15-38, 1976.
- [21] 송동립, "부부갈등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pp.143-171, 2009.
- [22] 박경란, 이영숙, "부인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9호, pp.59-70, 2005.
- [23] 강신성, 임왕규,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 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78-192, 2013.
- [24] J. A. A. Abe, "Positive Emotio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ccessful Experiential Lear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1, No.7, pp.817-822, 2011.
- [25]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y, Vol.56, No.3, pp.218-226, 2001.
- [26] J. Gottman, J. Coan, C. Swanson, and S. Carrere,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0, pp.5-22, 1999.
- [27] J. L. Driver and J. M. Gottman, "Daily Marital Interactions and Positive Affect during Marital Conflict among Newlywed Couples," Family Process, Vol.43, No.3, pp.301-314, 2004.
- [28] D. R. Shaffer,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rooks Cole, 1999.
- [29] 배병렬,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2011.
- [30] 여인동, *부부가 지각한 갈등과 자아분화수준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31] K. D. O'Leary and H. Turkewitz, "Marital Therapy from a Behavioral Perspective," In T. J. Paolino, Jr., B. S., McGrady (Eds.), *Marriage and Marital Therapy: Psychoanalytic, Behavioral and Systems Theory Perspectives*. New York: Brunne, 1978.
- [32] 김진숙,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검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33] 정중희,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34] 김혜원, 김명소, "취업이 기혼여성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3권, 제1호, pp.35-35, 1998.
- [35] G. B. Spanier,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No.1, pp.15-38, 1976.
- [36] 김수진, 도현심,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5호, pp.101-114,

2001.

[37] J. E. Hair, B. Babin, R. E. Anderson, and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ew York:Prentice Hall, 2006.

[38] 홍구화, 서영옥,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와 분노에 미치는 효과: 감사의 조절효과”, *인문논총*, 제29권, pp.157-175, 2012.

[39] 황민혜, 고재홍, “부부간 결혼 가치관 차이, 오행 및 부부갈등: 의사소통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4호, pp.779-800, 2010.

[40]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17권, 제4호, pp.415-434, 2011.

[41] J. H. Myers, *Efficacy, Emotion,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2004.

[42] L. L. Carstensen, J. Gottman, R. Levenson,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Vol.10, No.1, pp.140-149, 1995.

[43] 김초록, 신희천,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대처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2호, pp.451-469, 2011.

[44] C. Estrada, A. Isen, and M. Young, “Positive Affect Influences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Reported Source of Practice Satisfaction in Physicians,” *Motivation and Emotion*, Vol.18, No.4, pp.285-299, 1994.

[45] J. Ren, L. Hu, H. Zhang, and Z. Huang, “Implicit Positive Emotion Counteracts Ego Deple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8, No.7, pp.919-928, 2010.

[46] K. A. Eldridge,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During Marital Conflict: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Gender role Consider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n

Sanfrancisco, 2000.

[47] 오혜경, 박경숙, “여성 장애인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3권, 제2호, pp.40-66, 1999.

[48] 김영미, 류연규,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가족과 문학*, 제25권, 제2호, pp.90-128, 2013.

[49] 박운주, 김병석, “부부의 상위기분과 정서표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 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5호, pp.2945-2967, 2013.

[50] 우남희,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제20권, 제1호, pp.3-14, 1999.

[51] 조혜숙,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생애학회지*, 제3권, 제2호, pp.1-19, 2013.

[52] 김윤정, 서선영,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제25권, 제1호, pp.87-102, 2005.

저 자 소 개

서 미 아(Mia Seo)

정회원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정신간호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부부 및 가족상담, 정신건강, 부부 애착 손상, 정서중심치료